

### 한미 FTA시대 위기의 전남농업

농촌 그랜드플랜 세워야

# 무한경쟁 헤쳐 나갈 농업구조 새판 짜라

1993년 12월 우루과이라운드 체결된 지 14년이 지났다. 정부는 당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고 4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부었다. 정부는 또 지난 2002년 10월 한·칠레FTA가 체결된 이후에도 농가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우리 농가의 경제성적표는 오히려 더욱 악화된 상태다.

1993년도 농가소득 1천729만7천 원에 비해 1.6배가 늘었다. 그러나 농가부채의 경우 2006년 말 2천690만 2천 원으로, 지난 1993년도 부채 648만1천 원에 비해 무려 4.2배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채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서도 '과거에 보아왔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우려 섞인 눈길을 보내고 있다.

정부는 4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내놓은 '한·미 FTA 농업부문 대책방향'에서 수입증가에 따른 직접 피해보전, 품목별 경쟁력 제고 지원, 농업의 근본적 체

#### 경쟁력 제고에 정책 중점 뒤야

질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우루과이라운드와 한·칠레FTA 체결 당시 발표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은 피해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정책의 중심을 '농업경제 및 농업구조의 혁신을 전제로 하는 경쟁력 강화'에 두지 않는다면 한국 농업의 활로를 찾기 어렵다며 '한국 농업을 살릴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과거와 같은 일회성, 퍼주기 식 지원이 시대의 무한경쟁을 버텨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강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루과이라운드 체결된 지 14년째인 지금도 쌀시장 개방 앞에서 떨고 있는 것이 한국 농업의 현실"이라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퍼주기 식' 지원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우리 농업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 일회성, 퍼주기 식 지원 안돼

법인 제도 도입, 농지제도의 과감한 개혁, 기계화·자동화 영농체계 구축, 품질위주·환경보전형 농·수·축 산업 육성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농어촌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나서 98년까지 퍼부은 42조 원의 막대한 자금이 별다른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02년 10월 한·칠레FTA가 체결된 이후 상황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체결 당시보다 훨씬 많은, 119조 원이 투입되는 '농업·농촌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피해가 불가피한 키워드 시설 포도 재배농가 등에 보상하기 위해 1조2천억 원 규모의 천문학적 보상금도 마련했다. 그러나 결과는 신통하지 않았고, 이제 농가에 남은 것은 '농민이처럼 불어난 빚더미' 뿐인 것이 현실이다.

전남도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말 기준 전남도 내 농가소득은 2천797만4천 원으로, 13년 전인

### 강동순 방송위원 호남 비하 발언 논란

#### 우리당 광주시당선 사퇴 촉구...본인은 부인

한나라당 추천 강동순 방송위원의 호남 비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4일 성명을 통해 "방송위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부추긴 강동

순 위원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에 따르면 강 위원은 지난해 11월 9일 모 정당 소속 의원, 수도권 지역의 방송 대표 등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모임에서 "호남사람들은 심하게 이야기 하면 감정

일이 내려와도 우리 동네에는 포안 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누가 한반도를 통제해도 우리만 안 건드리면 된다. 이런 호남 사람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광주시당은 "강 위원은 자신의 처신에 대해 공인으로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 위원은 "호남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경제의 6.29 선언” “헌법위반 소지”

## 국회 상임위 FTA 공방...청문회 여부 주목

4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는 최근 체결된 한미FTA 결과 및 검증 절차 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양 위원회 의원들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한미FTA 협상단 수석대표로부터 한미FTA 협상결과 전반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은 뒤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논란 등 미타결 쟁점 현안과 함께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한미FTA 타결 후 처음 열리는 이날 국회 상임위 질의에서 의원들은 정파별 입장 내지 개인별 소신에 따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찬성파는 상임위 차원의 공청회를, 반대파는 상임위 청문회



김종훈 수석대표가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열린 한미FTA 협상결과보고회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청문회 요청발언을 들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및 국정조사를 각각 요구하며 맞섰다.

농해수위 의원들은 한미 FTA 협상타결이 소관 산업분야에 심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상임위 차원의 협상무효 결의안 채택 문제 등을 검토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합리적 최고기 수입' 발언 역시 도마 위에 올랐으며, 박홍수 농림장관의 사퇴도 언급됐다.

특히 한나라당 권오을 위원장과 한나라당, 우리당 간사 모두 FTA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회의에서 협상무효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비롯해 FTA 관련 청문회 실시 방안도 거론됐다.

민주당 신중식 의원은 "이 정부의 FTA 성공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장관이 사퇴서를 쓰고 농촌 살리기에 힘쓰면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입각 전 우리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던 박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통외위의 경우 한미 FTA 찬성과 의원들의 칭찬이 줄을 이었다. 특히 그동안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던 한나라당 의원들의 칭찬 릴레이가 이어져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 강경보수파인 김용갑 의원은 한미FTA 협상 타결을 "경제의 6.29 선언"이라고 규정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으며, 김무성 이해방 의원은 "협상단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한다"며 거듭 격려했다.

그러나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한미FTA 협상의 위한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과 함께 국민투표 필요성을 제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통합신당모임 합치기 시동

### 민주 박상천 대표 체제 출범...물밑 접촉 활발

민주당이 박상천 대표 체제를 출범시키며 대오를 정비함에 따라 그동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열린우리당 및 여당 탈당그룹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정계개혁의 흐름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선 박상천 대표가 그동안 밝힌 정계개혁의 시나리오는 4·25 보선이 끝나는 대로 오는 5월께 중도개혁신당 창당에 나선다는 것이다. 중도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원칙은 일단 열린우리당과 당 대당 통합은 없으며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의 참여 제한도 포함된다.

즉, 민주당은 당 그대로 참여하면서 열린우리당 탈당그룹, 국민중심당, 시민사회세력 등 정치권 외부세력을 결집해 중도개혁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간에 오는 25일까지 물밑 접촉을 하면서 재보궐 선거 이후 본격적인 신당 창당 준비에 나선다는 것이다.

특히, 박 대표가 특유의 협상력과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것이라는 선금적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통합신당모임 이강래 의원이 지난달 박 대표와 접촉, 통합교섭단체 구성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마쳤다는 후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통합신당모임의 최용구 원내대표는 "내주 초연 가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는 '도로 민주당'이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 현실화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 민주당 중심의 자강론과 열린우리당 주도 세력 제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중도개혁신당 그림은 열린우리당과 탈당 그룹의 거부감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논의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정파간 이해 다름도 범여권 통합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당장 김성곤 열린우리당 최고위원은 "국민은 도로 민주당도, 도로 우리당도 아닌 신당을 원한다"며 박 대표의 구상에 제동을 걸었으며 민생정치모임의 정성호 대변인도 "민주당 중심의 통합이 어느 정도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민주당 박상천 대표가 4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www.park1004.com

호남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明堂! (전남 곡성군 곡성읍 신기리 산167번지)

# 가족봉안묘원 특별분양!!



## 예부터 자손이 번창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는 「금계포란형」의 아름다운 청계공원

섬진강과 천혜의 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배산임수의 묘원



실제 안치된 모습



실제 안치된 모습

호남지역 최고의 장묘지로 무한한 가치보장 호남 최고의 명당을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현재 공사완료, 즉시 안치 가능  
현장답사 환영: 광주사무실에서 공원방문차량 운행 (탑승인원인 한정돼 있으니 방문전에 미리 예약하십시오.)



청계 32호



청계 24호



사각봉분형 16호



청계 8호



현장답사 환영  
광주→청계공원  
방문전 선착순 예약  
• 오전 10시 출발  
• 오후 2시 출발

선착순 배정  
신청금 10만원 (입금 순서대로 선착순 배정)  
(주)파라밸리 농협 1197-01-000331  
※미계약시 입금하신 신청금은 전액 환불!

■시행사: PARAVALLEY (주)파라밸리 ■재단법인: 아름다운 청계공원 분문의 062)521-1100, 011-666-8579